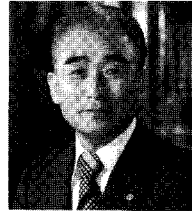




2천년을 향해 힘찬 도약을

개교 44주년을 맞으면서



총장 조영식 박사

천여하는 경희가족 여러분!
뜻 깊은 개교 44주년을 맞아 우리 모든 경희가족의 가슴속에 기쁨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축원합니다.

아울러 오늘의 경희가 있기까지 발전의 대열에 동참해준 모든 분들에게 깊이 감사드립니다.

돌이켜 보면 과거 우리가 면주역을 불린 죽고 오직 '학문' 하나, 해바야한 한나,는 불굴의 정신 하나만으로 학교발전을 위해 함께 뛰기 시작했지 바로 그제 길은데 벌써 개교 44주년을 맞고 개교 50주년을 바라보는 시점에 서있다고 생각하니 큰 감회들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6.25와 여러번의 전쟁을 온갖 어려움을 딛고 일어서 오늘 우리나라의 과거를 돌아보며 우리 경희의 역사는 바로 우리의 현대사와 궤를 같이하며 그 원동력이 되어준 국가발전의 축소관이라고 생각할때 이에 큰 자부심을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일찍이 농촌계몽운동, 문명개척운동, 꽃길·꽃동리구기운동을 전개하여 잡초고 있던 국민의 의식을 깨우치고 참살기운동, 밝은사회운동을 전개하여 물질적으로 풍요하고 정신적으로 아름답고 인간적으로 보람있는 밝은사회 구현에 앞장섰으며 연속적으로 세계평화운동을 전개하여 전쟁없는 인류평화세계를 이루는데 선구자적 역할을 다해왔음은 모두가 익히 잘 알고 있는 바입니다.

천여하는 경희인 여러분!
이제 우리 경희학원은 영광과 의지의 과거를 가슴에 품어 제2의 도약을 향해 힘찬 새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 70년대, 숭실정구하며 모든 대학들의 선망의 대상이었던 우리 경희가 80년대 혼돈의 와중에서 뜻하지 않게 긴시간을 침체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망황하다 다시 뛰기 시작했을 때 우리에게서는 허탈감과 때에 사투지는 후회했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절곡에서 우리는 다시 하나가 되어 제2의 창학의 정신으로 2000년대의 영광경로를 바라보며 경희 특유의 저력을 다시 발휘하였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최근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 등 국가자격고시에 전원 100%합격의 쾌거를 이루고 사법시험, 행정고시, 회계사시험 등 국가고시에서도 놀라운 성적을 거두어 우리 경희인의 숭은 저력을 유감없이 발휘하였습니다.

또한 1992년에 있었던 물리학과, 전자기

학과 학과평가에 있어서도 두 학과 모두, 서울·수원캠퍼스 학부 대학원 공히 다른 유수의 대학을 앞질러 우수교로 평가되어 다시 한 번 세인들을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더구나 두 캠퍼스 모두 우수교로 선정 받은 대학이 유일하게 우리 경희뿐이라는 사실은 더욱 큰 기쁨이요 자랑이 아닐 수 없습니다.

또한 신한국창조를 위한 새정부의 의욕적인 각종조리책의 과정에서 밝혀진 교육계의 부조리, 임시부정은 모든 국민들에게 커다란 실망과 놀라움을 안겨주었지만, 정도를 지키고 최고지성인 집단으로서의 책무를 다하기 위해 온갖 어려움을 딛고 모두 한마음으로 깨끗한 학교운영에 함께한 결과 「경희-부정정도는 학교」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었으며 여기에 또한 우리 모두가 큰 감회를 가져야 할 것입니다.

이제 우리 경희학원은 교육시설면에서 서나, 교육환경에 있어서도 또한 교수·학생의 자질면에서 있어서 능히 다른 유수의 대학들과 견줄 수 있는 놀라운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이제부터는 이 모든 조건들을 바탕으로 새로운 학생을 세울 훌륭한 학문적 성취를 통하여 국가와 인류사회의 발전에 보다 큰 기여를 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입니다.

얼마전 개교 45주년 기념사업추진위원회가 구성되었지만 이 위원회는 단지 개교 45주년만이 아니라 우리 경희역사에 분명한 하나의 획을 그어 줄 개교 50주년을 바라보며 그때의 큰 도약을 이루기 위해 출범하였습니다.

개교 50주년이 되는 1999년, 그때 우리 경희가 국내유수, 세계의 명문대학이 되기 위해 총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이것은 해도 되고 안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만 하는 우리의 당위적인 목표임을 다시 한번 가슴 깊이 새겨야 하겠습니다.

이 웅대한 목표는 결코 누구 누구의 의지만으로 가능한 것은 결코 아니며 과거 우리 경희의 역사에서 볼 수 있었듯이 모든 경희인이 하나가 되어 한마음으로 뛰쳐 나설 때 가능한 것입니다.

천여하는 경희인 여러분!
이제 목전에 와있는 21세기는 분명히 동북아의 시대라 될 것이며 그 중추국이 우리 한국이 된다고 생각할 때 그때에 이르러 우리 경희의 소인 또한 막을날 것입니다.

21세기 종합문명사회에서 국가발전의 향도하고 인류문명진보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자랑스런 경희가 되기 위해 오늘 내내 다시 한번 새로운 각오로 허리띠를 졸라매고 모두 하나가 되어 힘차게 뛰쳐나갑시다.

끝으로 학교살림차로서 오늘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경희가족과 교직원 같이 해온 데 대하여 큰 감회를 느끼며 오늘의 이 기쁨을 경희가족 모두와 함께 나누며 경희미래의 부단한 도약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반세기의 압축혁명 ... 驚異의 경희



공중에서 바라본 서울·수원 캠퍼스

촬영일:1993. 5 항공촬영:노민수(출판국:직원)

“힘과 지혜를 모아주십시오”

45주년을 우리모두가 준비합니다

1994년 5월 18일—
이날은 불모의 땅에서
오늘의 경희를 이룩한 지 45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개교 45주년—
불혹의 나이를 넘긴 경희는 이제 보다 나은 미래를 준비해야 할 시기입니다.

‘개교 45주년 기념사업추진위원회’에서는 94년의 개교45주년을 준비하며 더불어 99년의 50주년을 맞는 경희의 모습을 그려보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어느 한 사람의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경희 온 가족의 힘과 지혜가 필요한 일입니다.
‘45주년 기념사업추진위원회’에서는 여러분들의 참여와 뜻 있는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경희대학교 개교45주년 기념사업추진위원회

전화:961-0025, 0026